

유독 버거운 날도 있었다. 그날의 미션은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대화하기’였다. 나에게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자차 잘못 행동하면 바로 ‘1호선 빌란’과 같은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곳이었다. 실패해도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은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마치 출구 없는 무대에 홀로서 있는 기분.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용기의 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했다. 해야만 했다.

……는 무슨. 묵직한 인생 과제를 등에 업고 탄지하철은 홍대 입구행이 아닌 지옥행 열차 같았다. 그리고 나의 옆자리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말을 걸어야 하는데, 말 대신 심장이 목구멍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주머니, 다음 역에서 그냥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발, 제발…’ 마음속에서 간절히 외쳐대는  
겁쟁이의 말이 아주머니에게 뒹을 리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지하철 안에는 스마트폰을  
응시하는 건조한 눈동자들로 가득했다. ‘내가 입을  
뗀 순간 저 수백 개의 눈알이 나를 갈기갈기 찢고  
말 거야.’ 나 자신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마구잡이로  
몸집을 부풀리고 있었다. “크흠, 흄.” 애꿎은  
헛기침만 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로  
운을 띠워야 할지 몰랐다. 생각을 해봤자, 생각대로  
말이 나올 리 없었다. 이대로 있으면 우물쭈물의  
무한 굴레에 빠질 것만 같았다. 일단 무슨 말이든  
던져야 했다.

”저, 저기...”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곤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에게 말을 건 게 확실한 건지  
확인하려는 눈치였다. 아주머니의 머릿속에

풀칠면 1



## 미션! 조르바 100

풀칠면 1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글쓴이 왈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eunhae.com](http://jaeunhae.com)에서 확인하세요